

내재적 종교성향, 종교적 대처 및 감사의 관계

박 신 영 이 서 정 현 명 호[†]
중앙대학교

본 연구는 감사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적 변인을 탐색해보고, 내재적 종교성향과 감사의 관계에서 종교적 대처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보고자 수행되었다. 이 연구를 위해 216명(남성 97명, 여성 119명)의 기독교인이 각 변인의 척도에 응답하였다. 연구결과 감사는 기도의 빈도나 종교가 삶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종교적 신실성을 나타내는 종교 관련 배경변인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감사는 내재적 종교성향과 긍정적 종교적 대처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매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내재적 종교성향과 감사의 관계에서 긍정적 종교적 대처가 부분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종교적으로 성숙한 태도가 감사에 중요한 요인이며, 종교 안에서 바람직한 대처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의 감사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는 긍정적인 종교적 대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감사에 대한 개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함의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추후 연구에 대한 제안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종교성향, 종교적 대처, 감사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현명호, (156-756)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Tel : 02-820-5125, E-mail: hyunmh@cau.ac.kr

긍정심리학의 출현과 함께 개인이 지닌 중요한 강점이자 가치 있는 주관적 경험으로서 감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감사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것에 대해 다른 사람이나 대상의 공헌을 인식하고 고마운 느낌을 가지고 반응하는 적응적인 행동 경향성이다(임경희, 2010b). 최근 들어 감사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는 이유는 감사가 삶의 만족감이나 행복감에 이르는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는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 뿐만 아니라 행복, 희망, 낙관성, 관계에 대한 만족감 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강행원, 2007; 노혜숙, 신현숙, 2008; Emmons & McCullough, 2003; Emmons & Shelton, 2005; Watkins, Woodward, Stone, & Kolts, 2003).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감사를 중요한 핵심 덕목이자 가치로 다루고 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의 태도는 종교 안에서 신자가 갖추고 유지해가길 원하는 가장 공통된 가르침 중 하나이다(Emmons & Crumpler, 2000). 실제로 많은 선행 연구에서 종교와 감사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강행원, 2007; 권선중, 김교현, 이홍석, 2006; 류정희, 조발그니, 2009; McCullough, Emmons, & Tsang, 2002). 권선중 등(2006)이 감사성향 척도의 표준화 연구에서는 종교를 가진 응답자 중에서 종교의 종류에 따른 감사 수준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종교에 대한 깊이 즉 신실성에 따른 감사 수준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독실한 신자로 인식하는 집단은 보통 혹은 형식적인 신자에 비해 감사 수준이 높았던 것이다. 류정희와 조발그니(2009)가 가톨릭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

구에서는 교회 이외의 다른 곳에서도 기도를 하는 것과 같이 개인적으로 신앙 수행을 많이 하는 신자일수록 감사 수준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단순히 종교의 종류나 유무보다는 종교에 대한 믿음의 태도나 그 깊이가 감사와 더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Allport와 Ross(1967)는 개인이 종교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태도 및 목적을 ‘종교성’ 혹은 ‘종교성향’이라 정의하였고, 종교적 성향을 내재적 성향과 외재적 성향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르면 외재적 종교성향의 사람은 자기 개인의 목적을 위해 종교를 이용한다. 이러한 성향의 사람은 종교가 안정감이나 위로, 친교나 여가선용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을 채워주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한다(김동기, 2003). 이에 반해, 내재적 종교성향의 사람은 삶의 주요 목적을 종교에서 발견하고, 종교적 교리를 지키며 살기 위해 노력한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서 삶의 가치와 이상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삶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일반적으로 외재적 종교성향은 불안과 같은 부적응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으며, 내재적 종교성향은 심리적 안녕감이나 낙관성과 같은 적응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혜윤, 손은정, 2008).

종교인에게 종교는 스트레스 상황의 대처에 있어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 즉, 개인의 종교성향에 따라 상황에 대한 대처도 달라질 수 있다(반신환, 2006; Spilka, Shaver, & Kirpatrick, 1985). 스트레스나 위기와 같은 부정적 상황에서 개인이 취하는 종교적 신념이나 행동을 종교적 대처라고 한다. Pargament(1997)는 종교적 대처를 긍정

적 대처와 부정적 대처로 분류하였는데, 긍정적 종교적 대처는 개인의 통제를 증가시키는 대처이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 긍정적 종교적 대처를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절대자의 뜻을 찾고자 하며, 영적인 지원을 통하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부정적인 종교적 대처를 택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본인이 절대자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부정적 사건을 절대자의 처벌이나 악한 세력의 짓이라고 판단하며 신의 능력이나 사랑을 의심한다.

이러한 종교적 대처 유형은 개인의 종교성향과 삶의 주요 사건에 대한 심리적 결과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혀지고 있다(Pargament, 1997). 즉, 내재적 종교성향과 심리사회적 능력 및 자존감의 관계에서 특히 종교적 대처가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Hathway & Pargament, 1990), 내재적 종교성향과 정신건강의 관계에서도 종교적 대처가 연결고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지형기, 2000). 종교적 대처 중에서도 특히 긍정적인 종교적 대처는 내재적 종교성향과 삶의 의미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최명심, 손정락, 2010). 감사 역시 삶의 주요 사건에 대한 반응이자, 대상에 대한 복합적인 심리적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로 설명될 수 있다(임경희, 2010b). 신앙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내재적 종교성향의 사람은 종교 자체가 삶의 목적이므로 어떤 상황에서든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매 순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종교적 대처 방식을 취하며(신재은, 현명호, 2010; 조혜윤, 손은정, 2008), 이로 인해 심리적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종교적 성향과 감사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고, 종교적 대처를 매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종교성향에서도 종교적으로 신실하고 성숙하다고 간주되는 내재적 종교성향을 종교성향의 지표로 설정하였고, 내재적 종교성향과 관련이 높다고 알려진 긍정적 종교적 대처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종교에서 강조하는 교리를 자신의 삶에 내면화하는 이들은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절대자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찾고자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대처 방식은 이들이 부정적인 상황을 포함한 일상생활 전반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내재적 종교성향, 긍정적 종교적 대처 그리고 감사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방 법

참여자

본 연구를 위해 서울 소재의 성당 및 교회의 청년 25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총 236부의 질문지가 회수되었고, 1차 검토를 통해 설문을 완전히 작성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반응양식을 보인 총 20명의 자료를 제외한 216명(남성 97명, 여성 119명)의 자료가 모아졌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5.88(SD=3.65)세였다.

측정도구

종교성향. Allport와 Ross(1967)가 개발한 내재

적-외재적 종교성향 척도(Intrinsic religious and 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subscale)를 심수명(1993)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내재적 종교성향을 측정하는 8문항과 외재적 종교성향을 측정하는 11문항 및 집단의 구분에 사용되는 1문항을 포함하여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1점에서 4점 척도로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게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재적/외재적 종교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재적 종교성향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8이었고, 외재적 종교성향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4였다.

종교적 대처. Pargament, Koenig와 Perez(1998)이 개발한 종교적 대처 척도(The Brief Religious Coping Scale, RCOPE)를 조혜윤과 손은정(200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 종교적 대처 7문항과 부정적 종교적 대처 7문항을 포함해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 종교적 대처 항목에는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영적인 지지를 찾음, 영적인 연결을 찾음, 절대자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함 등이 포함되며, 부정적인 종교적 대처 항목에는 부정적인 상황이 절대자의 처벌이라는 평가, 영적인 불평, 절대자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각 문항에 대해 종교적 대처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에 따라 1점에서 4점 척도로 응답하고 이를 긍정적 종교적 대처방식 점수와 부정적 종교적 대처방식 점수로 각각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긍정적 종교적 대처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1이었고, 부정적 종교적 대처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2였다.

감사. 임경희(2010a)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감사성향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감사 대상에 대한 인식과 인정, 감사 정서의 체험 및 반응경향성이라는 두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인 문항의 내용에는 사람, 사물, 사건, 건강 등 감사할 대상이 있음에 대한 인식, 좋은 결과가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 주어진 것을 인정하는 것, 감사함을 느끼는 정서의 체험, 감사를 표현하거나 보은하려는 경향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항의 응답은 1점에서 5점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사성향이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5였다.

종교 관련 배경변인. 본 연구에서는 종교 관련 배경변인으로 신앙생활 기간, 미사(예배) 참석, 종교 활동 참석, 개인적 기도 빈도, 종교가 삶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문항 구성과 응답 내용은 표 1과 같다.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와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내재적 종교성향과 감사의 관계에 있어서 종교적 대처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종교 관련 배경변인의 특성

(74.1%)가 개신교(25.9%)보다 많은 편이며, 직업은 학생(54.2%)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미사(예배) 참석 빈도는 주 1회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57.4%) 종교가 자신의 삶에 상당하거나 매우 영향을 미친다(78.3%)고 대답하였다.

표 1과 같이 연구 대상자의 종교는 천주교

표 1.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종교 관련 배경변인의 특성(N=216)

변인	빈도	percent
성별	남	44.9
	여	55.1
종교	개신교	25.9
	천주교	74.1
직업	학생	54.2
	사무직	15.3
	기술직	3.7
	전문직	14.4
	자영업	1.4
	공무원	1.4
	기타	9.7
	신앙생활 기간	1년 미만
	1-2년	6.5
	3-4년	10.6
	5년-10년	15.7
	10년-20년	28.2
	20년 이상	35.6
미사(예배) 참석 빈도	1년에 3-4회	6.0
	월 1회	3.2
	월 2-3회	6.5
	주 1회	57.4
	주 2회 이상	17.6
	주 4회 이상	9.3
종교 활동 참석 빈도	참여하지 않음	13.0
	1년에 3-4회	6.0
	월 1회	4.6
	월 2-3회	4.6
	주 1회	35.6
	주 2회 이상	29.2
개인기도 빈도	주 4회 이상	6.9
	하지 않음	2.3
	급하거나 위기상황에만 함	6.5
	이따금	25.0
	1주에 몇 번씩	20.4
	하루 한 번	22.7
종교가 삶에 미치는 영향	하루에 몇 번씩	23.1
	거의 미치지 않는다	2.3
	약간 영향을 미친다	8.3
	보통이다	11.1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39.4
	매우 영향을 미친다	38.9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미사(예배) 참석, 종교 활동 참석과 같은 종교 관련 배경변인과 종교성향, 종교적 대처, 감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을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미사(예배)와 종교 활동 참석, 개인적인 기도의 빈도, 종교가 삶에 미치는 영향은 각 변인 간에 정적 상관이 있었다.

내재적 종교성향은 긍정적 종교적 대처와 정적 상관($r=.68, p<.01$), 감사와 정적 상관($r=.46, p<.01$)이 있었고, 부정적 종교적 대처와는 부적 상관($r=-.19, p<.01$)이 있었다. 외재적 종교성향은 긍정적 종교적 대처와 부적 상관($r=-.28, p<.01$), 감사와 부적 상관($r=-.17, p<.05$), 부정적 종교적 대처와는 정적 상관($r=.30, p<.01$)이 있었다. 또한 긍정적 종교적 대처는 감사와 정적 상관($r=.53, p<.01$)이 있었고, 부정적 종교적 대처는 감사와 부적 상관($r=-.20, p<.01$)이 있었다.

내재적 종교성향과 감사의 관계에서 종교적 대처의 매개효과 검증

종교성향과 감사의 관계에서 종교적 대처가 매개 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를 사용하였다. 이 절차에 의하면 매개변인의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결론내리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의 인과관계가 유의해야 한다. 둘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인과관계가 유의해야 한다. 셋째,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의 인과관계가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이 포함되었을 때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이 감소해야 한다. 이 때 독립변인의 β 계수가 유의하지 않게 되면 완전매개, β 계수가 감소하기는 하나 유의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부분매개 관계가 성립된다고 본다.

회귀분석 결과, 외재적 종교성향이 종속변인인 감사를 예측하는 설명력이 약 5%정도로 매개효과

표 2.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

	1	2	3	4	5	6	7	8	9
종교관련 배경변인									
1. 미사(예배) 참석									
2. 종교 활동 참석	.53**								
3. 개인기도 빈도	.34**	.28**							
4. 종교 영향	.44**	.39**	.53**						
주요변인									
5. 내재적 종교성향	.51**	.44**	.52**	.74**					
6. 외재적 종교성향	-.15*	-.19**	-.33**	-.41**	-.42**				
7. 긍정적 종교대처	.34**	.31**	.56**	.63**	.68**	-.28**			
8. 부정적 종교대처	-.08	-.02	-.15*	-.18**	-.19**	.30**	-.12		
9. 감사	.12	.15*	.31**	.40**	.46**	-.17*	.53**	-.20**	
평균	4.05	4.59	4.24	4.04	23.39	27.11	20.16	12.64	119.58
표준편차	1.13	1.80	1.34	1.02	3.75	4.52	3.63	3.98	12.26

* $p<.05$, ** $p<.01$

를 검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재적 종교성향과 감사의 관계에서 긍정적 종교적 대처의 매개효과만을 검증하였다. 표 3에서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내재적 종교성향이 매개변인인 긍정적 종교적 대처를 유의하게 설명하였고($\beta=.68$), 내재적 종교성향이 종속변인인 감사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beta=.46$). 또한 매개변인인 긍정적 종교적 대처가 포함되면서 감사에 대한 내재적 종교적성향의 영향력은 여전히 유의했으나($\beta=.18$), Sobel 검증 결과 그 차이가 유의하여서($Z=2.69, p<.01$) 긍정적 종교적 대처는 내재적 종교성향과 감사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논 의

본 연구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종교성향과 종교적 대처, 감사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종교와 관련된 배경 변인을 비롯해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고, 내재적 종교성향이 감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긍정적 종교적 대처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미사나 예배 참석의 빈도가 높은 것과 기도모임, 성경공부, 전도, 봉사활동 등 종교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서로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미사나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할수록 다른 종교 활동에도 참여할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사나 예배 참석과 감사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종교적인 활동의 참석은 감사와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그 정도가 매우 미미했다. 이에 비해 개인적인 기도 빈도나 종교가 삶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종교적 신실성을 나타내는 종교 배경 변인은 감사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단순히 형식적이거나 외적으로 종교의 의식이나 활동에 참석하는 것보다, 얼마나 내적으로 종교를 받아들이고 실제 스스로도 신앙적인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느냐가 감사를 하는데 있어 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는 종교에 대한 내적인 깊이가 감사와 관계가 있다고 밝힌 선행연구(권선중 등, 2006; 류정희, 조발그니, 2009)의 결과와 일치한다.

종교와 관련된 배경 변인 중 종교가 삶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내재적 종교성향과 매우 높은 정

표 3. 감사에 대한 위계적 회귀 분석

단계			<i>F</i>	ΔR^2	β
1단계:	독립변인	→ 매개변인			
	내재적 종교성향	→ 긍정적 종교대처	186.31***	.47	.68***
2단계:	독립변인	→ 종속변인			
	내재적 종교성향	→ 감사	57.66***	.21	.46***
3단계:	독립변인	→ 종속변인			
	매개변인				
	1) 내재적 종교성향	→ 감사	46.23***	.09	.18*
	2) 긍정적 종교대처	→ 감사			.41***

* $p<.05$, *** $p<.001$

적 상관관이 있었다. 이는 내재적 종교성향인 사람의 경우, 종교적 신념을 자신의 삶의 태도의 기본으로 삼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실제로도 종교라는 것이 그들의 삶 곳곳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재적인 종교성향과 긍정적인 종교적 대처는 예측한 대로 서로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관이 있었으며, 두 변인 모두 감사와도 정적인 상관관을 보여주었다. 즉, 내재적 종교성향을 지니고, 긍정적 종교적 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감사를 잘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재적 종교성향은 앞서 언급했던 종교가 삶에 미치는 영향과 부적인 상관관이 있었고, 부정적 종교적 대처와는 정적인 상관관이 있었다. 외재적 종교성향인 사람은 종교를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종교가 삶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 역시 크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은 부정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절대자를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절대자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쉽게 놓아버릴 수 있다.

종교성향과 감사의 관계에서 종교적 대처가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본 결과, 내재적 종교성향과 감사의 관계에서 긍정적 종교적 대처가 부분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내재적 종교성향이 감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분적으로 긍정적 종교적 대처를 통하여 감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종교에서 강조하는 교리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내재적 종교성향의 경우,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감사라는 핵심 신념 역

시 본인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수용 및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재적 종교성향이 감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내재적 종교성향의 경우 종교의 도덕적 측면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성이 감사와 같은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이나 친사회적 행동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는 선행연구(신재은, 현명호, 2010)를 통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내재적 종교성향과 감사의 과정에서 긍정적 종교적 대처가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내재적 종교성향의 사람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신을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절대자를 믿고 따르는 길을 택한다. 나아가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절대자의 뜻을 찾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긍정적 종교적 대처의 특성은 감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추측한다.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그 이면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노력하는 내재적 종교성향의 사람은 실제 그 상황에서 혹은 그 상황이 지나간 이후에 자신이 얻게 된 것을 더 크게 인식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와 같은 맥락에서의 감사는 삶의 사건의 심리적 결과이자 반응이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종교적 대처 유형이 주요 삶의 사건에 대한 결과와 종교성향 간의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Pargament(1997)의 연구를 지지한다. 이는 또한 신앙적인 부분에서 종교인이 택하는 바람직한 대처 방식과 신념이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의 감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종교와 삶의 일치를 시사한다.

추후 연구를 통해 경험적인 근거를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겠지만, 스트레스나 역경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조차 긍정적인 의미를 찾고자 하는 긍정적 종교적 대처는 감사에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McAdams, Reynolds, Lewis, Pattern과 Bowman(2001)는 자신의 삶과 관련된 사건을 보상적으로 귀결시켜 긍정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건도 의미 있는 사건으로 재구조화하도록 촉진할 수 있는 경향성을 감사라 하였다. 임경희(2010a)의 연구에서 감사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인 중 하나인 감사 정서 체험 및 반응 경향성에는 부정적인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 부여를 통해 감사에 이르는 사고 경향성이 포함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감사라는 개념 속에는 긍정적인 상황이나 사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이나 사건에서도 의미를 찾고자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것을 찾고자 하는 긍정적 종교적 대처의 특성이 비탄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삶 속의 모든 상황에 적용되어 나타나는 심리적 결과가 감사일 수 있다고 예측한다.

기독교 안에서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한 감사는 신앙심이 깊은 감정에 대한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Griffith, 1998). 실제로 내재적 종교성향의 사람이 감사할 경향 역시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성숙한 종교적 마음가짐이 감사를 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밝혀냈다. 더불어 기독교 교리를 구성하는 핵심 덕목이자 신자에게 강조하는 주요 의무로서 감사가 실제 삶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종교적 교리로서 감사의 효용성을 증명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생활 속 축복을 세어보는 것과 같은 간단한 개입만으로도 감사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

(Emmons & McCullough, 2003)는 의도적일지라도 감사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실제 감사할 경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교에서 강조하는 교리로써 감사도 처음에는 생소하고 인위적으로 느껴지는 이야기일 수 있다. 그러나 어느새 종교적 신념이자 의무로 자연스럽게 삶 속에 녹아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과정에서 종교를 대하는 태도는 감사를 받아들이는 속도나 깊이에서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나 성당을 포함한 종교단체에서는 감사를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 생활 속에서도 꾸준히 실천해나갈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감사가 단지 종교적 교리로 존재하는 것에서 나아가 삶에 꼭 필요한 지점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로써 신자는 감사의 효과와 필요성을 느끼고 진정으로 그들의 생활 속에 감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 역시 얻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개인이 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종교적 대처 전략을 선택하는지 탐색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부정적인 상황에서 종교적으로 바람직한 대처를 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 다른 상황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감사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내재적 종교성향과 감사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연구하여 두 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확장하였다. 또한 이 같은 과정에서 다양한 종교배경 변인이 감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다. 나아가 내재적 종교성향과 감사의 관계에서 긍정적 종교적 대처의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감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개입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천주교 신자와 개신교 신자를 포함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종교에 따른 감사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종교인뿐만 아니라 비종교인을 대상으로 감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종교인과 비종교인 간에 감사를 유발하는 요인의 차이점이나 공통점을 탐색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감사 수준에 있어 성별의 차이가 존재했으나 그 차이가 미미하여 고려할 수준은 되지 못했다. 하지만 성별 역시 감사와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선행 연구를 참고했을 때, 추후 감사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성별 역시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종교와 삶의 일치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상반되게, 신앙 안에서 바람직한 대처방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실제 삶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용서에 관한 연구 결과(신재은, 현명호, 2010)도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종교적 대처의 어떠한 속성이 감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종교적 대처와 용서의 과정 간에 이루어지는 심리적 기제를 탐색해봄으로써 감사와 용서가 가진 속성의 공통점이나 차이점, 나아가 감사와 용서에 이르는 심리적 과정의 차이를 알아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내재적 종교성향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감사와 관련한 외재적 종교성향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내재적 종교성향이나 외재적 종교성향 한 쪽이 온전히 높은 경우에 비하여, 두 종교성향이 모두 높은 경우 감사 수준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본다면 외재적 종교성향에 대해서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행원 (2007). 가톨릭신자의 종교성향과 희망, 감사, 자존감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선중, 김교현, 이홍석 (2006). 한국판 감사성향 척도 (K-GQ-6)의 신뢰도 및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1), 177-190.
- 김동기 (2003). *종교심리학*. 서울: 학지사.
- 노혜숙, 신현숙 (2008). 청소년의 감사성향과 심리적 안녕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5(2), 147-168.
- 류정희, 조발그니 (2009). 가톨릭 청년의 종교성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감사성향의 매개 효과. *인간연구*, 17, 69-105.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 반신환 (2006). 대학생의 종교와 종교적 대처: 내담자의 종교.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1, 139-155.
- 신재은, 현명호 (2010). 종교성향, 종교적 대처와 상황적 용서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4), 699-710.
- 심수명 (1993). 기독교인의 종교성향에 따른 자아분화와 죄책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임경희 (2010a). 감사성향 척도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1(1), 1-17.
- 임경희 (2010b). 감사 연구의 최근 동향 및 과제. *상담평가연구*, 2(1), 47-60.
- 조혜윤, 손은정 (2008). 종교성향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종교적 대처와 낙관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773-793.
- 지형기 (2000). 내재적 종교성향이 종교적 대처 유형을 매개하여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최명심, 손정락 (2010). 내재적 종교성향과 삶의 의미에서 종교적 대처의 매개역할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1), 91-105.
- Allport, G. W., & Ross, J. D. (1967).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 432-443.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Emmons, R. A. (2004) The psychology of gratitude: An introduction. In R. A. Emmons & M. E. McCullough (Eds.), *The psychology of gratitude* (pp. 3-1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Emmons, R. A., & Crumpler, C. A. (2000) Gratitude as a human strength: Appraising the evidenc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1), 56-69.
- Emmons, R. A., & McCullough, M. E. (2003). Counting blessing versus burdens: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gratitud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daily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377-389.
- Emmons, R. A., & Shelton, C. M. (2005). Gratitude and the science of positive psychology.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riffith, R. M. (1998). "Joy unspeakable and full of glory": The vocabulary of pious emotion in the narratives of American Pentecostal women. 1910-1945. In P. N. Stearns & J. Lewis (Eds.), *An emotional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pp. 218-240).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Hathaway, W., & Pargament, K. I. (1990). Intrinsic religiousness, religious coping and psychosocial competence: A covariance structural analysis. *Journal for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9, 423-441.
- McAdams, D. P., Reynolds, J., Lewis, M., Pattern, A. H., & Bowman, P. J. (2001). When bad things turn good and good things turn bad: Sequences of redemption and contamination in lie narrative and their relation to psychological adaptation in midlife adults and in stud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474-485.
- McCullough, M. E., Emmons, R. A., & Tsang, J. (2002). The grateful disposition: A conceptual and empirical top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1), 112-127.
- Pargament, K. I. (1997). *The psychology of religion and coping: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London: Guilford Press.
- Pargament, K. I., Koenig, H. G., & Perez, L. M. (1998). *The Many Methods of Religious Coping: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RCOP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an Francisco, CA.
- Spilka, B., Shaver, P., & Kirkpatrick, L. A. (1985). A general attribution theory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4, 1-20.
- Watkins, P. C., Woodward, K., Stone, T., & Kothe, R. L. (2003). Gratitude and happiness: Development of a measure of gratitude, and relationships with subjective well-being.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1, 431-452.

원고접수일: 2012년 4월 15일

게재결정일: 2012년 6월 16일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Religious Coping and Gratitude

Shin-Young Park Seo-Jeong Lee Myoung-Ho Hyun
Chung-Ang University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explore religious variables which have effects on gratitude and to investigate whether religious coping play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and gratitude. A sample of 216 Christians(97 men and 119 women) were completed the scale of each variable for this study. The results showed that gratitude was correlated with religious sincerity like the frequency of a private pray and influence of religion to life. Also gratitude was correlated with 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and positive religious coping. Result of testing mediation indicated that positive religious coping do the role of a partial mediator between 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and gratitude. This means a mature attitude religiously is an important factor for gratitude, and choosing a desirable coping in religious can advance on gratitude in daily life. Also the gratitude intervention will need to promote to choose positive religious coping.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directions of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religious coping, gratitude